

미국 증시 급락 이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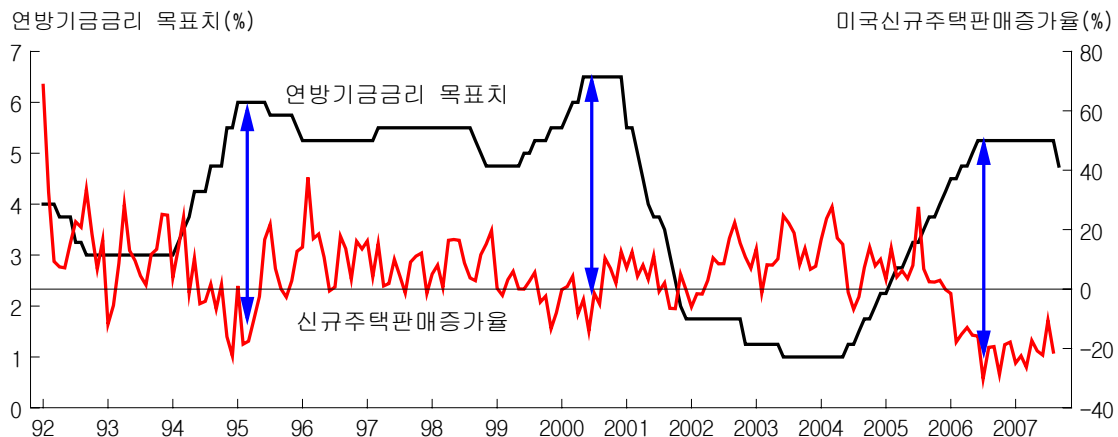
미국 주식시장이 급락세를 나타냈다. 1987년 10월 19일 블랙먼데이가 발생한지 꼭 20년만에 발생한 우연찮은 급락세는 많은 투자자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있다.

미국 주식시장의 하락폭이 다우존스지수 기준 2.64%로 블랙먼데이 때의 22.6% 하락에 비견되기 어렵고, 2000년 이후만 해도 9.11 테러 이후 개장시 7.13% 하락을 비롯하여 수없이 많은 급락세가 있었으며 2007년 들어서만 해도 3번째 급락인 동시에 낙폭도 3위에 머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향후 주가 향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?

가장 큰 이유는 **미국경제의 slow down 우려**이다.

▶ 미국경제의 slow down 우려

IMF는 서브프라임 사태로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006년의 2.9%보다 낮아진 1.9%를 기록하고 내년에도 1.9%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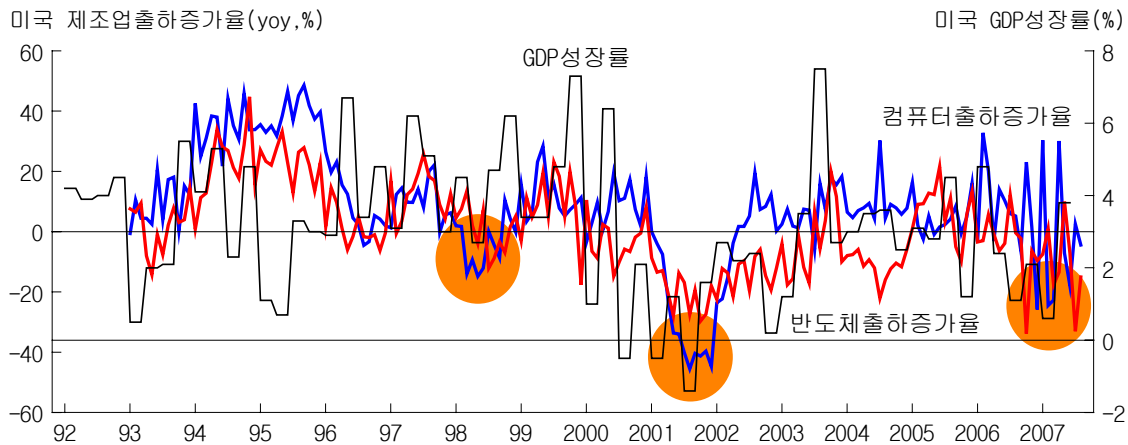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U.S. CENSUS BUREAU

서브프라임 사태 자체가 미국의 주택경기 하강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과 성장 둔화에 따른 모기지 연체에서 비롯됐지만 더욱 중요한 건 주택경기 하강을 대체할 제조업경기 즉, IT경기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.

본래 IT산업은 벤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저금리 기조와 주가 상승을 전제로 하지만 아직도 높은 금리 수준과 달러화 약세 및 이머징마켓 선호에 따른 미국증시의 상대적인 약세는 IT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.

또한 중국 등 개도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국제원유가의 상승과 이로 인한 개도국발 인플레이 우려는 향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마저 희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.



자료 : U.S. CENSUS BUREAU



자료 : 블룸버그

두번째 이유는 최근 벌어지고 있는 **중국 주식시장의 버블 논쟁**이다.

▶ 중국 주식시장의 버블 논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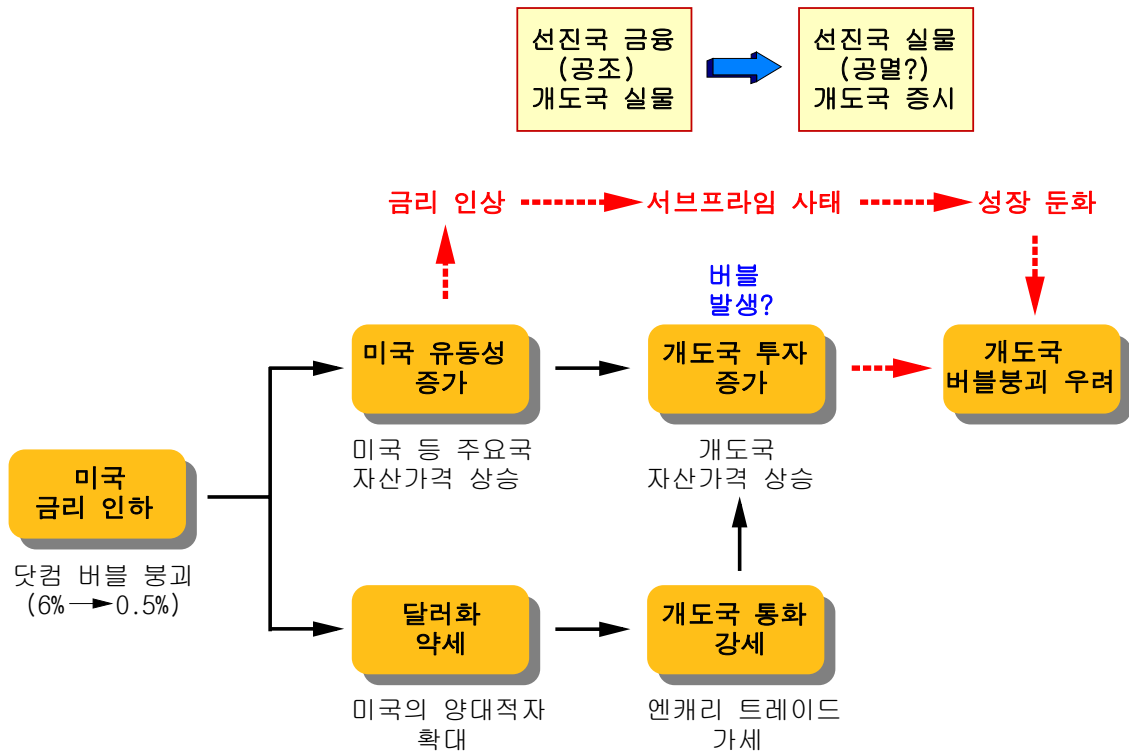
전세계 인구의 약 1/4이 쏟아내는 엄청난 저임금 노동과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인한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.

그러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손실 만화의 일환으로 개도국 주식시장 및 국제원유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(8월중 미국내 외국인투자자금 1,630억달러 유출 반면 이미 정마켓 펀드 자금 유입 급증)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한 점은 버블과 버블 붕괴 우려로 연결되고 있다.

그동안 미국, 유럽, 일본 등 선진국의 유동성 증가는 중국, 인도, 베트남 등 아시아 개도국에 대한 실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세계적인 주식시장의 활황과 세계경제의 호황을 유발했는데 이러한 **선진국의 금융경제와 개도국의 실물경제의 결합**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**선진국의 실물경제 위축과 개도국의 증시 버블 붕괴 우려**로 변화되고 있다.

이러한 점에서 볼 때 **선진국의 유동성 증가 지속과 실물경제 후퇴 영향 최소화(소프트랜딩)**, **개도국의 실물경제 호조 지속과 주가 상승** 여부가 세계경제 성장 지속의 관건이라고 볼 수 있다.

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향후 주식시장의 향방을 판단할 중요한 가능자는 ① 다음 주로 예정된 미국의 FOMC 회의(10월 30~31일)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여부와 ② 서브프라임 사태의 영향이 반영된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라고 볼 수 있다.



미국의 수요 감소에 따른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인지(매도) 또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통해 IT경기를 진작할 것인지(IT 매수)에 초점을 맞춘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.

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또한 본 자료는 각종 정보를 토대로 최선을 다해 작성했으나 담당 연구원의 주관적인 판단과 예상이 반영된 것이니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